

vol. 35
2020. 12

항만과 산업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0. 12. 22 편집&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등산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 | | |
|-------------|----|
| 1. 국내 항만 동향 | 02 |
| 2. 품목별 동향 | 10 |

주요 항만 동향



- 부산항만공사(BPA), 신남방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물류 거점 확보
- 인천항 11월 컨테이너 물동량, 최대치 경신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통합 운영사 출범
- 울산항 에스오일, 울산신항 해상에 제2원유하역시설 완공
- 대산항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배터리분리막 소재 생산 설비 증설 완료 후 상업 생산 시작

주요 품목 동향



- 컨테이너,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금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7%, 3.8% 상승함
- 철재, '20년 10월 세계 조강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1억 6,189만 톤 기록
- 기타광석, 미달러 약세 및 중국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요 광물가격 하락
- 유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되어 '20년대 중후반 석유 수요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고철, 일본 고철 수출시장 상승세 지속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신남방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물류 거점 확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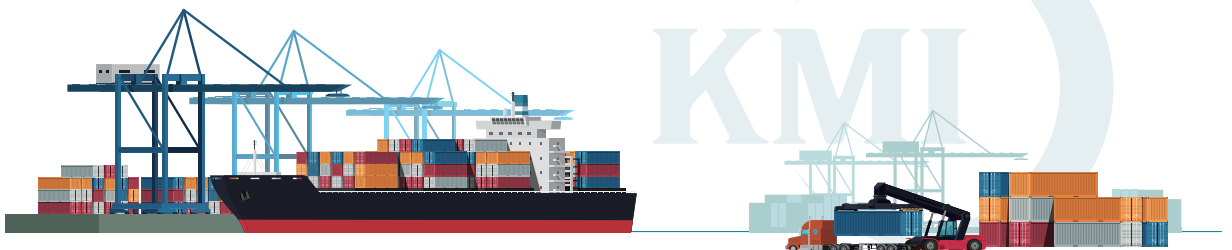
- ☞ BPA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지역의 프로볼링고항에 보세창고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부산항과 인도네시아 간 물류 연계성을 확대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는 수도권(자카르타)에 이은 제2의 경제권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
- 특히 프로볼링고항은 인근 수라바야항의 체선 증가에 따른 대체항만으로 보세창고 등 물류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BPA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물류회사인 PK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21년 2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2월에는 보세창고 건립 완료 및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임

② BPA, 미주와 동남아 항로에 신규투입 되는 선박의 항비 50% 감면을 통해 수출기업지원 계획²⁾

- ☞ 지난 12월 21일 BPA는 미주·동남아 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힘
- 해상 운임상승과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은 '20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어 '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됨
- 선박이 부족한 미주와 동남아 항로에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부산항의 수출화물 적체 해소 및 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감면 제도를 추진할 계획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0.12.2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050&mCode=MN1445> (2020.12.30. 검색)

2) 부산시 보도자료(2020.12.2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047&mCode=MN1445> (2020.12.30. 검색)



2) 인천항

① 11월 컨테이너 물동량, 최대치 경신³⁾

- ☞ 인천항의 '20년 11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역대 월별 최고 실적인 29만 5,259TEU를 기록하였으며 '20년 4월 이후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중임
- '20년 11월 물동량은 역대 월별 물동량 중 최대 기록인 '20년 7월의 29만 3,172만TEU 대비 약 2,087TEU 높은 수준임
- 이 중 수입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1% 증가한 14만 3천TEU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수출물동량은 경우 7.8% 증가한 13만 8천TEU를 기록함
- '20년 11월 누적물동량의 경우 298만 3천TEU를 기록, 전년 동월의 282만TEU 대비 약 5.8% 증가함
- 국가별로는 대중국 물동량은 약 9.9% 증가한 18만TEU를 기록하였고 이 중 수입과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 11.2% 증가함
- 베트남과의 교역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6% 증가한 3만 1천TEU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수입과 수출이 각각 2.6%, 20.2% 증가함

② 야드 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⁴⁾

- ☞ '20년 12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행 중인 야드 트랙터(YT, Yard Tractor)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미세먼지저감 달성을 위해 '20년 9월 이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E1컨테이너터미널(E1CT),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3개사의 야드 트랙터 68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함
- 동 사업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야드 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 해당 사업으로 인천항 야드 트랙터의 친환경 전환율은 약 92% 수준을 달성하였고, 야드 트랙터에서 직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8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0.12.2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6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0.12.23.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6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0.12.23.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0.12.2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5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3\(2020.12.21.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5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3(2020.12.21.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통합 운영사 출범⁵⁾

☞ SMGT-GWCT 통합 완료, 24시간 운영체제 기틀 마련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보도자료(20.12.02)를 통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SM상선광양터미널(SMGT)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통합을 발표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합은 SM상선이 보유한 SMGT 지분 97.86%를 GWCT가 인수하고 SMGT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방식임
- 통합 추진 과정에서 SMGT 노동조합과 임금, 복지조건 등 핵심사항에서의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YGPA의 임대료(297억 원) 유예·분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실현됨
- 또한, 부두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 하역장비 16기를 이전할 예정으로 지난달 29일 SMGT 부두의 하역장비 5기를 우선 이전함
- YGPA는 이번 운영사 통합을 통해 SMGT 종사사 전원에 대한 고용 보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광양항 24시간 운영체제 기틀 마련을 통해 향후 물동량 증대 및 항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② 여수광양항만공사 인공지능 기반의 항만 변압기 관리 추진⁶⁾

☞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변압기 안전관리 실시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보도자료(20.12.22)를 통해 딥러닝 기술 기반의 항만 변압기 운영시스템 도입을 발표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YGPA는 산업용 AI솔루션 전문벤처 기업인 원프레딕트와 함께 AI 기반 변압설비 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함
- 이번 시범 도입의 대상시설은 광양항 종합변전소에서 보유중인 154/22.9kV 변압기 2대이며, 한국전력공사 변압기 8,000대에 대한 35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 상태까지 분석하는 방식임
- YGPA 관계자는 AI 기반의 변압기 분석을 통해서 항만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광양항에 보유 중인 모든 변압기에 적용시켜 스마트한 광양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0.12.0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jsessionid=L3AGg4lhksyOZuPNo5tGloVnXF1lmwyRYD4UeqLVa05cAVRIVJ92QcXiaPvPX5Bp.webserver2.servlet.engine17boardId=bbs.000000000000213&mode=view&cntId=809&category=\(2020.12.27.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jsessionid=L3AGg4lhksyOZuPNo5tGloVnXF1lmwyRYD4UeqLVa05cAVRIVJ92QcXiaPvPX5Bp.webserver2.servlet.engine17boardId=bbs.000000000000213&mode=view&cntId=809&category=(2020.12.27. 검색))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0.12.2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20&category=\(2020.12.27.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20&category=(2020.12.27. 검색))



4) 울산항

① 에스오일, 울산신항 해상에 제2 원유 하역 시설 완공⁷⁾

✎ 에스오일은 2년 7개월간 총 1,720억을 투자하여 울산공장의 두 번째 원유 하역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을 시작함

- 해당 시설은 원유선 계류설비와 44인치 직경의 해저 및 육상 송유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대형 원유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이 깊은 해역에 고정형 부이를 설치하고 송유관을 통해 육상 저장탱크로 원유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됨
- 기존 원유 부이는 1980년 공장 가동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 울산공장의 원유 처리량 증가에 따라 추가 부이 건설을 추진하였음
- 두 번째 원유 부이 가동으로 에스오일은 기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원유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후속 공정의 정상적 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기상에 따른 원유선의 체선료 및 원유 긴급 임차비용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 하역시설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② 울산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 예정⁸⁾

✎ 울산 북구 명천동에 20Mw급 고체산화물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최근 발전사업 착공식이 개최됨

- 이번 사업에는 대원그룹, 한국동서발전, SK건설, 경동도시가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울산 최초로 LNG를 이용해 20Mw 급 고체산화물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짐
- 고체산화물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 수집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시설로 1,4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완공 예정임
- 발전소는 울산 전체 45만 가구 중 약 5만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며 단계적 설비 확대로 추후 25만가구의 전기수요를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울산시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 등 관련 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분야도 확대하여 세계적인 수소산업 생태계를 양산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함

7) 대한석유협회 회원사소식(2020.11.03.)
[http://www.petroleum.or.kr/ko/news/news6.php?option=f_all&keyword=%EC%9A%B8%EC%82%B0&category=&id=1971&page=1&mode=read\(2020.12.14. 검색\)](http://www.petroleum.or.kr/ko/news/news6.php?option=f_all&keyword=%EC%9A%B8%EC%82%B0&category=&id=1971&page=1&mode=read(2020.12.14. 검색))
 8)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뉴스(2020.12.09.)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2020.12.14. 검색\)](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2020.12.14.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0월 물동량 회복세 지속⁹⁾

📌 평택·당진항의 10월 물동량은 1,006만 3천 톤으로 전년 동월(978만 7천 톤) 대비 2.8% 증가함

- 컨테이너는 중국, 동남아로부터의 수입 물량 증가로 10월 누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594,753TEU) 대비 7.7% 증가한 640,636TEU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물동량 증가 추이는 인하여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주요 화물 10월 누적 물동량은 액체화물이 전년 동기(2,365만 1천 톤) 대비 4.0% 감소한 2,269만 5천 톤을 기록했으며, 전체 물동량의 43% 이상을 차지하는 철재류가 전년 동기(4,148만 6천 톤) 대비 8.4% 감소한 3,801만 톤을 기록하면서 전체 항만 물동량은 전년 동기(9,354만 톤) 대비 6.0% 감소한 8,792만 6천 톤으로 집계됨

②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¹⁰⁾

📌 해양안전정보 및 기상정보 공유 및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사고방지에 주력할 예정임

-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풍랑특보 발효일이 많고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안전정보와 기상정보를 선박 종사자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항내 공사작업 현장 및 선박 방문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에 주력할 예정임
- 또한, 여객선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 입항 선박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도 힘쓸 계획임

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0.11.23.),
<https://pyeongtaek.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6220&boardKey=7&menuKey=410¤tPageNo=1>(2020.12.17. 검색)

1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0.12.07.),
<https://pyeongtaek.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6232&boardKey=7&menuKey=410¤tPageNo=1>(2020.12.17. 검색)



12) 포항시 보도자료(2020.12.08.) <https://www.pohang.go.kr/news/bnews.do?enc=Zm5jdF8QEB8JTJGUmJmZTJtJGbmV3cyUyRjU0YScyUyRjQ2ODk1MSUyRmFjY2JGNSVmlldy5kYUuZmRnZjU0M0xJTl00XzU1ZjJnJnVbHvbUuZRCUyNnN5Y2hXcmQlMQlMjZiYnNDBFNlc3RlZCUyNmliZmVmlld01pbmU1M0RmYWxzZSUyRmNmxpc3Rnb2RlTUNEJ>

8) 목포항

① 목포항 내 방치선박 실태점검 실시¹³⁾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함
- 주요 점검 장소는 북항, 남항 인근, 고하도, 장좌도, 신항교 앞 해상 등 5곳이며, 점검대상은 전복, 침몰되거나 방치된 페어선, 뗏목 등임
- 실태점검 중 발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를 파악하여 제거를 명령하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은 일정기간 제거 공고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임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0.12.1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0444>(2020.12.17. 검색)

9) 군산항

①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과 금란도 개발을 위한 지역 상생 협약 체결¹⁴⁾

- ☞ 지난 12월 23일 전라북도는 관계 기관들과 금란도 개발완료(22년)와 군산항·장항항 재개발을 위한 ‘군산·서천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금강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 되어 매년 준설이 필요
- 이에 '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m²)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음
- 금란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금강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 하는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왔음
- 한편, 서천지역의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기능이 이전 되고 있어서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4) 전라북도청 보도자료(2020.12.24.),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3003001000&boardId=BBS_0000020&dataSid=513572 (2020.12.30. 검색)



10) 마산항

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¹⁵⁾

- ✎ '03년 12월 마산항 개발의 일환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추진하게 됨
- '12년 7월부터 '14년 10월까지 호안 축조 공사를 완료, '15년 1월 준설토 투기 완료한 후 '15년 2월부터 '19년 12월까지 연약지반 개량을 완료한 상태임
-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구역 일부에 대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을 모두 이룰 계획임
- 지난 10월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방향을 전체 공간 642,167m² 중 68%인 439,048m²에 대해 자연 친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32%인 203,119m²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는 개발방향 비전을 발표함
-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여 민간의 창의적·복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후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스마트한 공간'인 297,000m²를 공모구역으로 설정, 민간의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따라 지정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는 민간자본유치구역 203,119m²를 토지로 공급받아 민간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공모의 기본방향은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개발을 통한 원도심과의 조화·상생·미래혁신 성장 도모, 정부가 시행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 마산 돌섬유원지 등과 연계한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의 세계적인 감성 도시 조성에 목적을 둠

15) 창원시청 보도자료(2020.12.14.),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ldx=662091&ptidx=108&id=0201020000>(2020.12.17. 검색)



2. 품목별 동향

1) 컨테이너¹⁶⁾

① '20년 11월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금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7%, 3.8% 상승함

☞ 공산품의 수출물량지수는 섬유(-7.5%)와 석탄 및 석유제품(-10.5%)등이 감소하였으나 컴퓨터·전자(+12.2%), 화학제품(+12.6%), 전기장비(+16.5%)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7% 증가함

(단위: %)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을

구 분	2020년							
	물량지수				금액지수			
	8월	9월	10월	11월p	8월	9월	10월	11월p
총 지수	-3.7	13.4	0.1	5.7	-9.3	7.6	-3.5	3.8
농림수산물	-15.4	1.0	-11.4	10.5	-16.8	-1.6	-10.0	14.7
공산품	-3.6	13.5	0.1	5.5	-9.3	7.8	-3.5	3.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2020.12.29)

② '20년 11월 수입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 지수는 전년 대비 0.6%하락함

☞ 수입물량지수는 농림수산물(-0.1%), 광산품(-6.9%)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공산품(+13.1%)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수입금액지수도 농림수산물(-3.6%), 광산품(-33.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11.1%)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단위: %)

수입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을

구 분	2020년							
	물량지수				금액지수			
	8월	9월	10월	11월p	8월	9월	10월	11월p
총지수	-4.7	11.2	4.3	9.1	-15.9	-0.1	-6.7	-0.6
농림수산물	-6.9	23.2	3.8	-0.1	-10.9	15.6	-1.5	-3.6
광산품	-21.6	13.2	2.7	-6.9	-45.8	-20.5	-29.6	-33.6
공산품	-0.2	8.5	3.3	13.1	-4.9	5.4	0.4	11.1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2020.12.29)

16)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12.29.),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1982&menuNo=200690&searchWrd=%EA%B5%90%EC%97%AD%EC%A1%B0%EA%B1%B4&searchCnd=1&date=&edate=&pageIndex=1> (2020.12.30. 검색)

① '20년 11월 순상품 교역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 모두 전년대비 7.8%, 14.0% 상승

☞ '20년 1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8.9%)이 수출가격(-1.7%)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함

-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5.7%)가 상승하고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7.8%)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0% 상승

(단위: %)

교역조건지수 등락률

구 분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p
순상품교역조건지수	6.7	5.7	7.7	7.8
소득교역조건지수	2.8	19.8	7.8	14.0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2020.12.29)

2) 양곡

① 미국 농무부(USDA)는 12월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서 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1.9%)과 소비량(+1.8%), 교역량(+5.3%)의 증가를 전망함¹⁷⁾

☞ 2020/21년도 세계 밀 생산량(+1.2%), 공급량(+2.4%), 소비량(+1.3%), 교역량(+1.1%)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2020/21년 시즌 세계 밀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7억 7,370만 톤, 7억 5,780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교역량은 1억 9,3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1억 4,360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교역량은 1억 8,6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6%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었음

- 2020/21년 시즌 세계 옥수수 공급량과 소비량은 각각 14억 4,700만 톤(+0.8%), 11억 5,800만 톤(+2.2%)으로 예측됨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2월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2020.12.11.), http://www.krei.re.kr:18181/board/month_market/view/wr_id/5659/page/1 (2020.12.30. 검색)



3) 시멘트

① '21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 전망¹⁸⁾

☞ '21년 국내 건설수주 금액은 '20년 대비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년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2년 간 연속 7% 이상 성장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172.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투자는 공공사업 증가세로 약 2%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업체들 간 수주경쟁 과열로 인해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년 건설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부진에 대한 우려가 강했으나, 건설수주 증가세 및 투자 회복세 등으로 예상보다 호조세를 나타냄

- '20년 3분기 기준 건설수주액은 약 130.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4분기까지 호조세를 나타낼 경우 올해 건설수주액은 약 18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됨
- 한편 '21년 건설투자액은 '20년 대비 약 2.0% 성장한 약 267.7조 원으로 전망됨

18) 건설경제신문(2020.12.01.), http://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011007132510755 (2020.12.02. 검색)

4) 모래

① '20년 10월 건설수주 감소세 기록¹⁹⁾

☞ '20년 10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의 경우 양호하였으나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8% 감소한 14.7조 원을 기록함

- 국내 건설수주는 '20년 5월에 약 37.4% 반등한 이후 6월에는 66.4% 증가하였으며, 8월 및 9월에 각각 69.8%, 51.9% 증가하여 최근 5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20년 10월 공공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한 3.3조 원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나타냄
- '20년 10월 민간수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13.4% 감소한 11.4조 원을 기록하였고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12.08.),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49>(2020.12.08. 검색)

5) 석탄

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²⁰⁾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석탄발전 감축과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 총력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보도자료(20.12.28)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이하, 9차 계획)를 확정·공고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크게 ①수요전망 방법론 개선하여 예측오차 최소화, ②기존수단 이행력 강화 및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전력수요관리, ③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한 '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④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 ⑤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시장제도 개선 등임

2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28.),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670&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9%EC%B0%A8(2020.12.29. 검색)

-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 및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 및 LNG발전 확대를 위해 석탄발전 감축 계획이 포함됨
-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기 60기 중 30기(15.0GW)를 폐지하고, 신규 7기(7.3GW)를 준공하여 현재 35.8GW의 발전능력을 '34년 29.0GW로 6.8GW를 감축할 예정이며,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각각 17.8GW, 57.7GW 증가할 계획임
-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물동량이 즉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용 물동량 감소가 우려됨

6) 철광석

① 발레(Vale)사 중국 Ningbo-저우산항에 철광석 저장가공 시설 건설 투자²¹⁾

- ☞ 브라질 철광석 최대 생산업체인 발레사와 중국 Ningbo-저우산항만공사(Ningbo Zhoushan Port)는 중국 저우산에 철광석 저장가공 시설 투자 계약을 체결함
- 약 43억 위안(6억 5,060만 달러)을 투자하여 철광석 저장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발레사와 Ningbo-저우산항만공사가 각각 지분의 50%를 소유하게 됨
- ☞ 해당 투자는 지난 '20년 8월 철광석 그라인딩(Grinding) 센터 준공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투자로 저장성 무역지구에는 최대 410만 톤의 광석 혼합 및 가공시설과 선박용 정박지 2개를 갖춘 철광석 저장 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② 글로벌 철광석 가격 톤 당 152.4달러로 '13년 이후 역대 최대치 갱신²²⁾

- ☞ '20년 12월 11일 기준 글로벌 철광석 가격은 전주 대비 11.7% 상승한 톤 당 152.4달러를 기록하면서 '1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함
- ☞ 중국 정부의 유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폭등과 함께 브라질 철광석 공급 차질 및 중국-호주 정보와의 갈등 격화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됨
- ☞ 이와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 수출항만인 호주 필바라항에 사이클론 경보가 이어지면서 철광석 가격 상승을 견인시키고 있음
- ☞ 한편, 전문가들은 투기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철광석 가격이 고평가 되어있다고 분석한 반면 일부에서는 중국의 재고량 급감으로 철광석 가격 상승세가 '21년까지 계속될거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됨

2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0.11.17),
[https://www.kores.net\(2020.12.15. 검색\)](https://www.kores.net(2020.12.15. 검색))

22)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0.12.14.),
[https://www.kores.net\(2020.12.15. 검색\)](https://www.kores.net(2020.12.15. 검색))

7) 기타광석

① 미달러 약세 및 중국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요 광물 가격 하락²³⁾

 미달러 약세 및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에 따른 '동'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동' 가격 소폭 하락

- 미달러 약세 및 중국의 정련동 수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도 3분기 생산실적 부진으로 가격 상승 압력 발생
- 하지만 미국과 유럽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칠레의 광산생산 회복으로 인해 상기의 상승압력이 상쇄됨
- 이에 따라 10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한 톤당 6,703달러를 기록함
- 다만 최근 미연준의 금리동결 및 양적완화 유지 결정에 따라 미달러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칠레, 페루, 잠비아 등 주요 생산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방리스크는 상쇄될 전망이다

 미달러가치 하락세 유지 및 중국의 경기개선 효과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심화로 아연 가격은 소폭 하락

- 미연준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 추진 결정으로 미달러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에 따른 아연도금강 생산확대로 수요가 증가하여 아연 가격 상승압력 발생
- 하지만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상기 상승 압력이 상쇄됨
- 이에 따라 9월 아연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0.48% 하락한 톤당 2,442달러를 기록함
- 다만, 미달러가치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볼리비아, 캐나다, 나미비아 등의 감산이 전망됨에 따라 중국의 생산 확대의 공급부족 가능성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함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약세 및 중국 수요 증가에 따른 니켈 가격 상승

-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우려되나, 미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미달러가치 약세로 투자심리가 회복, 중국의 경기개선으로 니켈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함
- 더불어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생산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로 상승압력이 심화됨
- 이에 따라 니켈의 10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2.4% 상승한 톤당 15,219달러를 기록함
- 최근 미연준의 금리동결로 미달러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 정책에 따른 배터리 핵심원료인 니켈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 공급과잉으로 스테인리스 가격 하락이 심화되는 등 하방요인도 상존함

23) 자원시장 월간동향, 20-11호,
한국광물자원공사, 2020.11

8) 목재

① 세계 목재산업 동향(2020년 10월)²⁴⁾

📌 수요동향

- 중국의 '20년 8월 소매 가구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8월까지 누적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함
- 국제 침엽수 회의(ISC:International Softwood Conference)는 '21년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년 9월의 미국 주택착공은 전월 대비 1.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한 141만 5천호를 기록함
- '20년 8월 일본 주택착공은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한 6만 9,101호를 기록함

📌 생산동향

- 독일 침엽수의 제재목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목재 얼라이언스(Russian Wood Alliance)는 펠릿 생산을 강화하고 있음
- '20년 10월 미국 서부제재목 누적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함
- '20년 8월 캐나다 제재목 누적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함

📌 수출·수입동향

- 중국의 '20년 9월 목재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원목 5%, 제재목 8% 감소함
- 뉴질랜드의 '20년 9월 원목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함
- 러시아의 '20년 상반기 버치합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33만m³를 기록함

📌 세계 임업정책 동향

- 미국 산림 서비스는 커뮤니티 목재 에너지 및 목재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합공동체(CEMAC)는 '21년부터 원목 수출 금지를 권고함

📌 국내 목재산업 영향

- 유럽 및 호주로부터 병충해, 폭풍우, 산불 피해목 등 저가의 제재용 원목 물량 수입이 지속 증가함
- 8월부터 선박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수출입에 차질을 빚고 있음

24)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 2020년 10월 주요국가 목재산업 정보(2020.11.20.),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1347&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o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0.12.1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1347&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o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0.12.17. 검색))

목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9월 누적)

품목	단위	2019년 10월 누적	2020년 10월 누적	증가율(%)
원목	천m³	2,181	2,162	-0.9
제재목	천m³	1,937	1,787	-7.7
성형목재	톤	100,229	103,679	+3.4
합판	천m³	1,251	1,282	+2.5
파티클보드	천m³	987	1,013	+2.6
섬유판	천m³	268	180	-32.8
목재펠릿	천 톤	2,479	2,415	-2.6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 2020년 10월 주요국가 목재산업 정보(2020.11.20.),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1347&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o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0.12.1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1347&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o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0.12.17. 검색))

9) 고철

① 일본 고철 수출시장 상승세 지속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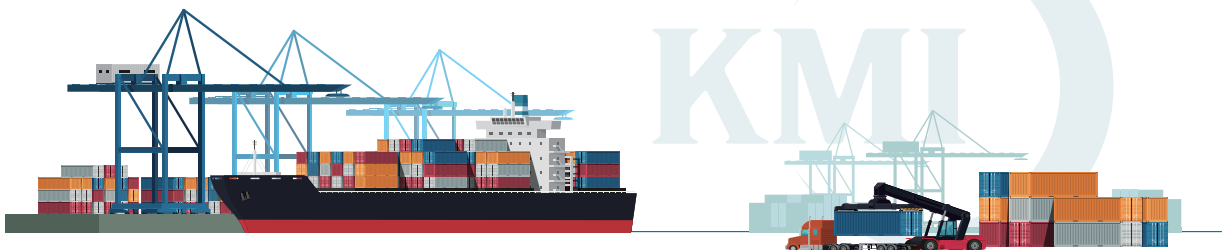
- 12월 둘째 주 일본 고철 수출시장은 10월 이후 현재까지 36.5% 상승폭을 기록하여 터키, 중국, 한국 시장과 비교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관동지구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기준 일본 고철 수출가격은 3만 5천엔으로 직전 주말대비 1천엔 급등함
- 최근 2주 사이 주요국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인한 고철 발생량 저하에 따른 수급 부담 우려가 커진 반면 베트남이 강하게 고철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내년부터 중국의 고철 수입재개가 예상되면서 일부 중국 업체들이 물량확보를 위한 일본시장 사전조사에 들어가면서 일본 수출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중국은 '19년 7월 이후 수입 고형 폐기물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고철 수입에 일부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최근 새로운 기준을 협의하여 수입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음

25) 스크랩워치(2020.12.09.),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94\(2020.12.15 검색\)](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94(2020.12.15 검색))

10) 철재

① '20년 10월 세계 조강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1억 6,189만 톤 기록

-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완화된에 따라 '20년 8월 이후 총 조강 생산능력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8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한데 이어 9월에는 2.9% 증가하였으며 10월에는 7.0%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폭이 확대되고 있음
-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의 증가 영향이 크며 여전히 북미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15.5% (-128만 7천 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아시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3%(+1,131만 5천 톤) 증가하였으며 그 중 중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일본과 한국이 전년 대비 각각 117%(-95만 톤), 1.8%(-10만 5천 톤) 감소하였으나 중국이 빠르게 경제회복을 하면서 같은 기간 12.7%(+1,042만 2천 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아 생산량을 견인함



(단위: 천 톤, %)

'20년 10월 세계 조강생산량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10월	누적	10월	누적	당월	누적
EU(17)	12,023	120,524	11,575	101,051	-3.7	-16.2
other Europe(9)	8,525	89,450	8,792	86,881	3.1	-2.9
North America(2)	8,280	84,233	6,993	68,783	-15.5	-18.3
South America(10)	4,805	49,670	4,846	43,615	0.9	-12.2
Middle East(5)	5,811	60,919	6,856	62,354	18.0	2.4
Africa(3)	1,166	11,980	1,100	10,173	-5.6	-15.1
Oceania(2)	540	5,146	578	5,052	7.0	-1.8
Asia(11)	109,331	1,113,346	120,646	1,129,284	10.3	1.4
- China	81,781	829,874	92,202	875,517	12.7	5.5
- India	8,981	93,036	9,058	79,685	0.9	-14.4
- Japan	8,150	83,782	7,200	68,407	-11.7	-18.4
- South Korea	5,964	59,628	5,859	55,039	-1.8	-7.7
- Taiwan, China	1,713	18,611	1,660	17,325	-3.1	-6.9
Others	723	8,188	470	5,537	-35.0	-32.4
World	151,248	1,543,455	161,890	1,512,730	7.0	-2.0

자료: 세계 철강 협회, www.worldsteel.org(2020.12.15. 검색)
주: 매월 업데이트됨에 따라 전월 수치가 재확정됨

② 하반기 조선 수주실적 개선²⁶⁾

📌 국내 조선업계의 하반기 수주실적 개선으로 11월 누적기준 1위인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

-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64만CGT로 한국이 전체 물량의 60% 수준인 99만CGT을 수주함
- 특히 상반기 이후 국내 선박수주량이 증가하여 7월~11월 기준 상반기대비 약 186% 증가함
- 11월 누적기준 여전히 중국이 667만CGT(4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502만 CGT(35%), 일본이 118만CGT(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수주량 실적과는 반대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1월 누적 기준 1,447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57% 수준에 불과함

-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의 발주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외 선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또한 선박 발주 감소에 따른 선박 건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조선업계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6) 철강금속신문(2020.12.14.), <http://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962>(2020.12.15. 검색)

11) 자동차

① 세계 자동차산업, 신흥국 중심으로 10년간 연평균 4%대 성장²⁷⁾

✎ '09년 9억 8천만 대였던 전 세계에서 운행 자동차 총 대수는 '19년 52.0% 증가한 14억 9천만 대를 기록함

- 선진시장의 경우, 자가용 이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북미는 '09년 2억 8,900만 대 '19년 3억 5,600만 대로 23.1%, 유럽은 3억 3,300만 대에서 4억 700만 대로 22.2% 증가함
- 신흥시장의 경우, 아시아는 '09년 2억 4,400만 대에서 '19년 5억 2,600만 대로 115.7% 증가, 남미는 5,500만 대에서 9,200만 대로 67.6% 증가, 중동은 3,400만 대에서 6,100만 대로 81.0% 증가하는 등 세계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천 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세계 '09년 천 명당 155대에서 '19년 211대로 증가함

- 선진시장의 경우, 북미는 '09년 639대에서 '19년 723대로 증가, 유럽은 447대에서 533대로 증가하는 등 세계평균보다 높은 보급률을 유지함
- 신흥시장의 경우, 아시아는 '09년 66대에서 '19년 129대로 증가, 남미는 144대에서 203대로 증가, 중동은 92대에서 138대로 증가, 중국은 46대에서 182대로 증가, 인도는 15대에서 45대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자동차 수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늘어났으나 자동차 보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낮음

✎ 세계 자동차 생산은 북미 생산회복과 아시아의 생산능력 확대에 힘입어 '09년 6,240만 대에서 '19년 9,260만 대로 10년 전 대비 48.4% 증가함

- 북미는 '09년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후 경쟁력 회복과 멕시코 생산능력 확대로 '09년 870만 대에서 '19년 1,680만 대로 10년 전 대비 91.5% 증가함
- 중국의 자동차 생산이 '09년 1,380만 대에서 '19년 2,570만 대로 10년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커지면서 아시아는 '09년 3,050만 대에서 '19년 4,860만 대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59.2% 증가함

✎ 최근 3년('17-'19) 세계 자동차산업은 평균 3%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차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19년 자동차 생산은 '18년 9,750만 대에서 '19년 9,260만 대로 전년대비 5.0% 감소, 자동차 판매도 '18년 9,520만 대에서 '19년 9,150만 대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감소폭도 2년 연속 증가함
- 세계 자동차 판매는 '18년 461만 대에서 '19년 527만 대로 14.4%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은 최근 3년(22.5%) 대비 둔화됨
- 미국은 최저수준 금리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대중교통 기피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의 영향, 유럽은 저공해차량 인센티브, 지속적인 여행 제한, 코로나19로 지연된 대기수요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7)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0.12.02.),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66&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66&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0.12.17. 검색)

12) 잡화

① '20년 10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한 173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 금액은 동 기간 12.8% 증가한 97억 7,500만 달러임²⁸⁾

☞ 일반기계업종(-12.6%)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기기계(+11.5%) 부문의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10월 기계 수입은 전 부문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임, 특히 정밀기계(+22.0%)와 수송기계업(+15.6%)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단위: 백만 달러, %)

'20년 10월 기계산업
업종별 품목동향

구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산업	17,334	-3.1	9,775	12.8
일반기계업	3,773	-12.6	2,768	6.4
전기기계업	3,684	11.5	1,919	12.7
정밀기계업	1,467	-1.2	2,056	22.0
수송기계업	7,595	-3.3	2,510	15.6
조선	1,390	-16.6	276	1,410.4
금속제품업	815	-12.1	522	3.4

28)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0월호(2020.10.15.),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0.10.30. 검색\)](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0.10.30. 검색))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2월호(2020.12.14.),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0.12.30. 검색, KMI 제작성\)](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0.12.30. 검색, KMI 제작성))

13) 유류·화학공업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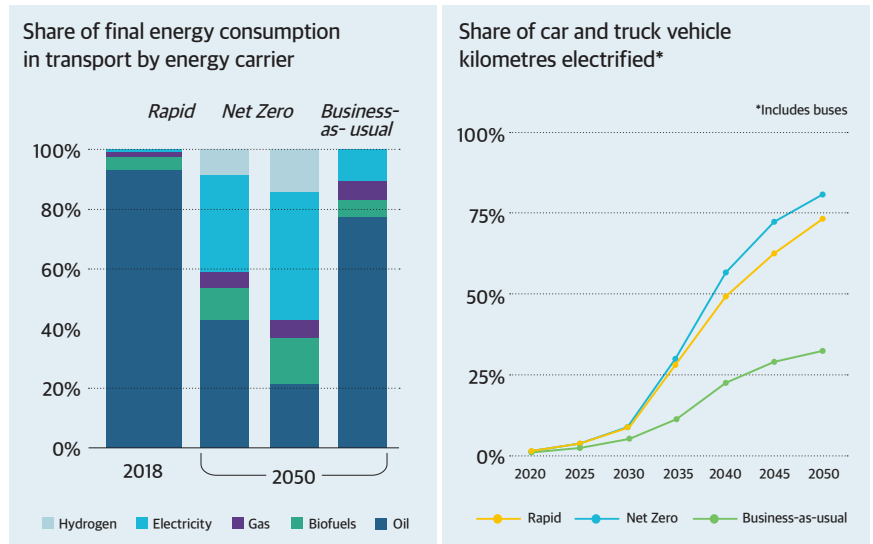
① 대한석유협회, 세계적 석유회사 BP의 세계 장기 에너지 및 넷제로(탄소중립) 전망을 다룬 해외보고서 발표²⁹⁾

☞ 보고서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되어 '20년대 중후반 석유 수요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50년까지 여객 수요 및 화물용 수송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수송 부문내 부분적으로 석유가 전기 및 수소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수송 부문에서의 1차 에너지 증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개도국, 아프리카, 남미에서 여객 및 화물 수송 수요가 대폭 성장할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대수 점유율 전망은 승용차에서 '50년까지 최대 80%~85%, 경/중간 트럭에서 70%~8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주목할 부분은 '50년까지 전기차 비중 확대에 의한 탄소 배출 감축분보다 차량연비 개선에 따른 석유사용 저감으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임

29) 대한석유협회 글로벌 오일 뉴스레터 (2020.11.12.), file:///C:/Users/minso/Downloads/[1%EC%9A%94%EC%95%BD] %20%E2%98%85(%EA%B8%80%EB%A1%9C%EB%B2%8C%EC%98%A4%EC%9D%BC%EB%89%B4%EC%8A%A4%EB%A0%88%ED%84%B0%2020-17%ED%98%B8)%EC%B5%9C%EC%A2%85.pdf(2020.12.14.검색)

'50년 수송부문 에너지별 소비비중 및 차량 주행거리 중 전기 비중 전망



출처: Energy Outlook 2020

☀ '20~'50년 세계 석유류 공급추세 전망에서는 미국의 셰일오일 반등이 단기적으로 주요 요인이며 중장기적으로는 OPEC의 생산 비중 증가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발표함

- 미국 셰일오일은 코로나 영향에서 회복된 이후 '30년 초반까지 최대 1,500만 b/d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부터 미국 및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 OPEC 생산량은 향후 10년에 걸쳐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30년 이후 전체 석유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석유정제 전망은 수요감소와 생산능력 감소로 비관적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경쟁심화, 중소 정유사들의 섣다운 증가 등으로 '3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끝으로 전세계 탄소배출량은 '50년까지 95%이상 감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BP社は 석유소비가 약 2500만 b/d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IPCC(세계기상기구)는 현 수준 대비 최대 90%까지 석유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경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안승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12. 22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